

제8회 보은동학제 기념 학술세미나

‘보은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기념사업 방향’

◎ 일 시 : 2010. 4. 23(금) 14:00 ~

◎ 장 소 : 문화원시청각실

- 사 회 자 : 박진수 (보은동학기념사업회)
- 주제발표 :
 - 제1주제 - 〈보은의 동학유적지의 보존 방향〉
우종윤(충북대박물관 학예사)
 - 제2주제 - 〈보은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추진현황과 방향〉
박결순(중원문화연구소장)
 - 제3주제 - 〈보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연구와 전망〉
신영우(충북대학교 교수)
- 토 론 자 : 김양식(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문병학(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 주최 / 보은문화원, 보은동학제추진위원회

▣ 주관 / 중원문화연구소

제8회 보은동학제 기념 학술세미나

‘보은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기념사업 방향’

◎ 일 시 : 2010. 4. 23(금) 14:00 ~

◎ 장 소 : 문화원시청각실

- 사 회 자 : 박진수 (보은동학기념사업회)
- 주제발표 :
 - 제1주제 - 〈보은의 동학유적지의 보존 방향〉
우종윤(충북대박물관 학예사)
 - 제2주제 - 〈보은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추진현황과 방향〉
박결순(중원문화연구소장)
 - 제3주제 - 〈보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연구와 전망〉
신영우(충북대학교 교수)
- 토 론 자 : 김양식(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문병학(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 주최 / 보은문화원, 보은동학제추진위원회

▣ 주관 / 중원문화연구소

보은 동학유적지의 보존방안

우 종 윤(충북대 박물관)

< 차 례 >

1. 머리말
2. 보은 동학유적지의 문화재적 가치
3. 동학유적지의 문화재 지정관리 현황
4. 보은 동학유적지의 현황과 문제
 - 1) 보은 동학유적지의 현황
 - 2) 보은 동학유적지의 현상과 문제
5. 보은 동학유적지의 보존방안
6. 맺음말

1. 머리말

충북지역에는 동학 및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32곳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보은지역에는 장내리 집회지, 김소천가, 복실 집단매장지, 복실 전투지 등 4곳의 유적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¹⁾ 장내리는 동학의 도소(都所)가 있던 곳으로 동학의 최대 중심지였으며, 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북접동학농민혁명군들이 집결하였던 곳이다. 특히 장내리 집회는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이끌어내는 추진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 종곡리 복실마을은 북접동학농민혁명군의 최후 전투지와 집단유해 매장지가 있는 곳으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은의 동학 및 동학농민혁명유적지에 대하여는 학술적 고증이 부족하여 학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보은 장내리 및 종곡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구심점이 되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 116주년이 되는 현재에도 유적지가 보존관리되지 않고 훼손·멸실되어가고 있어 유적지 보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보은 장내리, 종곡리, 누청리의 동학유적지 현황을 살펴본 뒤 보은 동학유적지의 보존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보은 동학유적지의 문화재적 가치

1) 충청북도, 2006.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237~304.

2) 우윤, 2003. 「1892~93년 동학농민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충북학』 제3집, 15~28.

문화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것이 문화재보호법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유형과 성격, 가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종류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하며,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한다.

지정문화재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문화재로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³⁾

보은 동학유적지는 시설물이나 터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를 유형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크게 나누면 문화유산이 되며, 시설물(돌성, 석루, 보루 등)과 터(도소터, 성터, 매장터, 전투터 등)가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어 유적에 해당된다. 유적은 다시 성격에 따라 유사 이전, 제사·신앙, 정치·국방, 산업·교통·토목, 교육·사회사업, 분묘·비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동학유적지는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 분류되며, 세분하면 전적지 가운데 동학전적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즉, 보은 동학유적지는 문화재 분류 체계상 문화유산/유적/정치·국방/전적지/동학전적지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문화재적 가치 및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받아야만 가능하다. 동학 유적지가 문화재로 지정된다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사적으로,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기념물로서의 문화재 자격을 갖게 된다.

3. 동학유적지의 문화재 지정관리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학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많지 않은 편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동학 유적지를 문화재 분류체계로 보면 동학전적지(황토현 전적지, 사적 제295호 등), 생활유적(전봉준선생 고택지, 사적 제293호와 수운 최재우 유허지,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2호 등), 천도교(상주 동학교당,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20호), 기타종교공예(상주 동학교당 유물,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11호), 순절지(손병희선생 유허지, 충청북도 기념물 제30호) 등이며, 시설물 또는 터의 형태로 남아 있는 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물로 지정된 것은 1곳뿐이다. 이들 유적·유물은 관련 학문분야의 학술연구와 고증, 역사적 가치 및 의미를 부여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의해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동학 유적지 가운데 보은의 동학유적지와 유형 및 성격이 유사하며, 동학전적지로 지정된 유적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황토현 전적지(黃土峴 戰蹟地)⁴⁾

3) 문화재청, 2008. 『문화재관계법령집』

4) www.cha.go.kr

종별 : 사적 제295호, 규모 : 164,658㎡, 지정일 : 1981.12.10

소재지 :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악리 산2번지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물리친 격전지이다. 황토현 싸움의 승리로 인해 기세가 높아진 농민군은 정읍, 흥덕, 고창, 무장을 비롯한 주변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나아가 전주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죄없이 갇힌 죄수들을 석방하고 무기도 탈취하였으며, 무장으로 진격하여 교도 40여 명을 구출하였다. 이곳에서 전봉준은 동학운동의 의의를 나타내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황토현 싸움에서의 승리는 동학농민혁명을 크게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막이 내려지지만, 이 혁명에서 보여준 개척정신과 민족자주정신은 민족독립운동의 전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1963년 갑오동학혁명기념탑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1964년 팔각형석탑을 세웠다. 황토현 전적지는 1976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되었고, 1981년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사적 제295호)되어 성역화사업을 추진하여, 기념관, 강당, 사당(祠堂)인 구민사(救民詞), 전봉준 동상, 황토현전적지정화기념비 등이 세워져 있다.



[사진 1] 황토현 전적지



[사진 2]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사진 3] 제민당



[사진 4] 전봉준 동상

2) 우금치 전적지(牛禁峙戰蹟地) 5)

종별 : 사적 제387호, 규모 : 698,297㎡, 지정일 : 1994.3.17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금학동 327-2번지 일원

5) www.gongju.go.kr

우금치 고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을 상대로 최후의 격전을 벌인 장소이며, 공주에서 부여로 넘어가는 견준산 기슭의 고개로 우금고개, 우금재, 비우금 고개라고도 부른다. 1894년 11월 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군은 공주감영을 함락하기 위하여 공주 주변의 효포, 널티, 우금고개 등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의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특히 부여 쪽에서 공주로 진입하는 관문인 우금고개는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곳이다. 이 싸움에서 공주를 중심으로 향후 전투를 이끌어 나가려던 동학농민혁명군은 거의 전멸하였고, 우금치 싸움 후 재기를 노리던 전봉준이 체포되어 이듬해 3월 처형됨으로서 동학농민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사진 5] 우금치 전적지

동학농민혁명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73년 동학농민혁명군 위령탑건설위원회에서 우금고개에 동학혁명군위령탑을 세웠으며, 농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는 1994년에 우금치는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3) 황룡 전적지(黃龍 戰蹟地)⁶⁾

종별 : 사적 제406호, 규모 : 20,388㎡, 지정일 : 1998.4.10

소재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356번지 외 17필지

황룡전적지는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서울에서 파견된 경군을 무찌른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격전지로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전국에서 헌수운동을 통해 이곳에 동학기념공원을 조성하였다. 황룡전투는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이 고창, 영광, 함평현을 차례로 점령한 후 전주를 점령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경군과 일대접전을 벌였던 전투이다. 이 싸움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서울의 정예부대를 격파한 의미있는 전투로서 농학농민혁명군에게는 사기와 자신감을 주고, 경군에게는 낭패와 당혹감을 주어 그들의 행동반경을 위축시킨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로 전주성을 점령하였으며, 몇 차례 공방을 벌인 후 휴전을 서두르면서 농학농민혁명군의 요구를 수용했던 전주화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동학사상을 일깨우고 후세에 역사교육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성군에서는 1994~1997년 동학혁명승전기념공원을 조성하였고, 기념탑과 경군대장 이학승 순의비가 세워져 있다. 황룡전적지는 역사적 고증을 거쳐 1998년 사적 제406호로 지정되었다.

6) www.jangseong.go.kr



[사진 6] 기념공원근경



[사진 7] 증좌승지이공학승순의비

4) 장흥 석대들 전적지(長興 石臺들 戰蹟地)⁷⁾

종별 : 사적 제498호, 규모 : 35,700㎡, 지정일 : 2009.5.11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일원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이자 당시 강진현(현 강진군 장진읍)과 전라병마절도사영(현 강진군 병영면), 벽사역(현 장흥읍 원도리 방면), 장흥도호부(현 장흥읍성 남문, 장흥읍 동동리), 자울재(현 장흥읍과 용산면 경계의 고개)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학농민혁명군과 관군 사이에 많은 사상자를 배출한 전적지이다. 특히 장흥 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전투로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체포된 이후에도 항전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로 2009년 사적 제498호로 지정되었다.



[사진 8] 장흥 석대들 전적지 전경



[사진 9] 영회당

5)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洪川 豊岩里 東學革命軍 戰蹟地)⁸⁾

종별 : 강원도 기념물 제25호, 규모 : 1,229㎡, 지정일 : 1977.11.8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5-11,12번지

7) www.cha.go.kr

8) www.great.go.kr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싸웠던 전적지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홍천지방에서도 농민운동이 크게 일어나 농민군의 일부가 관아를 공격하고자 산에서 내려와 장야촌까지 진군하였으나, 관군 총사령관 맹영재와 싸워 동학군 30여 명이 전사하였다. 여기에서 패한 동학군은 풍암리에 집결하여 최후의 항전지인 자작고개에서 김숙현을 중심으로 관군과 싸웠으나 끝내 패하여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하고 말았다.



[사진 10]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전적비

1976년 자작고개에서 지역주민들에 의해 유해더미가 발견되었는데, 당시 사망자를 800여 명으로 추정하였지만 부상자를 함께 묻었다고 하니 그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도 풍암리 주민들은 전투에 동학혁명군으로 참여하였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제사를 음력 10월 20일부터 수일간 많은 집에서 지내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동학군 전적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4. 보은 동학유적지의 현황과 문제

1) 보은 동학유적지의 현황

(1) 보은 장내리유적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는 1893년 수만 명의 동학교도들을 집결시켜 집회를 열었던 곳으로, 장내리 집회는 1894년 대대적인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는 전사(前史)로서의 위치와 장내리 집회에서 내건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운동을 전개하여 동학교도들이 정치개혁과 외세배척운동의 중심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⁹⁾

9) 신영우, 2003. 「1893년 보은 장내리의 동학집회와 그 성격」 『충북학』 5, 29~47.



[사진 11] 보은 장내리유적 전경

장내리 유적지는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서 현장 정밀조사 및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동학집결지 돌성과 대도소 자리, 병어리성 등의 유적을 확인하였다.¹⁰⁾ 장내리 동학교도 집결지의 성터유적은 강들로 쌓은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성터는 동-서 약 90m이고, 남-북은 거의 파괴되고 성터 흔적만이 확인되나 약 36~42m정도로 추정되며, 성벽 높이는 54~110cm정도 남아 있다. 대도소 자리는 돌성과 옛 장내리 마을터의 사이에 있고, 병어리성은 장내리 남쪽 해발 330m쯤의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병어리성은 동학집회 당시 산봉우리에 50명씩 올라가 깃발을 세웠던 성으로 성들은 거칠게 다듬은 조질화강암이고, 규모는 동-서 14.3m, 남-북 10.5m로 타원형을 이루며 높이는 1.3~3m이다. 성은 평탄한 대지상을 형성하고 있는 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성벽은 확인되지 않고 석루만 남아 있으며 그 중앙부에는 민묘 1기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장내리에는 동학교도들이 머물 수 있는 400여 채의 초막이 지어졌으며, 초막 자리는 돌성의 서쪽과 마을 남쪽의 공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장내리 유적지는 대규모의 보은집회가 열리고 동학교단의 본부로 쓰이던 대도소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충청북도 최고·최대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로 주목되고 있다.¹¹⁾

10)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보은군, 1993. 『보은 장내리 동학유적-사적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안-』 (연구총서 제5책)

11) 충청북도, 2007.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



[사진 12] 都所 자리 전경



[사진 13] 돌성 전경



[사진 14] 돌성 근경



[사진 15] 병어리성 전경

(2) 보은 종곡리 북실유적

종곡리 북실유적지는 1894년 12월 17일 동학농민혁명군과 일본군, 상주 소모영 유격병대가 전투를 벌였던 동학교단의 최후 전투지로서 12월 17일~18일 이틀 동안의 전투에서 무려 2,6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²⁾ 희생된 유해들은 증언과 현지조사를 통해 작은가마실골과 덕다리골, 종곡리 산5-1번지 능선 골짜기, 안양마을 동쪽 첫 번째 골짜기 등에 집단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1993년 조사에서 집단매장지로 추정되는 5개 지점에서 소규모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해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토양시료의 인산(P) 함유 분석결과 0.15~0.8%의 인산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집단매장지 중 한곳이 안양마을 동쪽 첫 번째 골짜기가 유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다라니마을 뒷산 해발 349m의 정상부에서 화강암 할석으로 축조된 석축 유구를 확인하였다. 규모는 동서축을 기준으로 9~10m이며 중앙부에 동-서 2.4m, 남-북 2.1m, 깊이 0.7~1m 크기의 타원형 웅덩이가 있다. 이 석축 유구는 동학농민혁명군이 북실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일 때 그들의 거점으로 이용했을 개연성이 높은 보루로 판단하고 있다.¹³⁾ 그러나 이 석축 유구는 규모가 작고, 쫓기는 긴박한 전투상황에서 축조하기 어려운 점,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 구조 및 성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동학농민혁명군

12) 신영우, 1993. 「동학농민전쟁기 보은 일대와 북실전투」 『보은 종곡리 동학유적-북실전투 및 관련유적과 집단매장지 조사-』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70.

13)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보은군, 1993. 『보은 종곡리 동학유적-북실전투 및 관련유적과 집단매장지 조사-』 33~34.

과 직접 관련된 석축 보루로 규정하는데 모두 견해를 같이하고 있지만은 않은 듯하다.



[사진 16] 석축 보루



[사진 17] 집단매장지 전경

종곡리 북실마을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희생된 동학농민혁명군이 집단매장된 곳으로 마을 대부분이 유적지라 할 수 있으나 현재 뚜렷하게 남아 있는 관련 유적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석축 유구와 추정 집단매장지는 앞으로 보다 정밀한 학술조사를 통해 정확한 성격과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보은 김소촌가

보은읍 누청리 123-6번지에 위치한 김소촌가는 1894년 12월 16일 종곡리 북실에 들어온 동학 교주 최시형을 비롯하여 손병희·정태춘·이국빈·김군오 등 북집동학농민혁명군 지도부들이 북실전투 직전에 머물던 곳이다. 이 김소촌가는 1993년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서 관련 유적 조사시 함께 조사하였는데, 현재 김중구씨가 거주하며 원양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집에는 당시 김소촌가에 사용되었던 문짝이 일부 재사용되어 남아 있고, 건물은 ㄱ자 모양의 본채와 그 옆으로 사랑채가 있으며, 앞쪽으로 솟을 대문을 가진 행랑채가 6칸 규모였다는 증언을 통해 당시 건물의 배치와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사진 18] 김소촌가 전경

현재 동학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민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에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집터(560평)와 가옥 구조물 일부가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학 관련 유적지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보은 동학유적지의 현상과 문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은 동학유적지는 지리적 위치와 유적이 지닌 성격으로 볼 때 크게 집회지, 전투지 및 매장지, 동학지도자 체재지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세분하면 대도소 자리, 돌성, 초막 자리, 병어리성, 전투지, 희생자매장지, 석축 보루, 집터와 가옥 구조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유적지에 대하여는 1993년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보은 종곡 동학유적』·『보은 장내리 동

학유적』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보고서에는 보은 동학 관련 유적조사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현장고증, 새로운 유적의 확인, 도소건물 복원에 관한 연구, 정비·복원안 및 사적공원 정비 계획안 등 고고학·역사학·건축학·미생물학 등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유적의 상세한 현상, 학술적·역사적 가치와 의미, 유적의 정비·복원방안, 문화재의 지정관리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사와 의견제시가 이루어진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적지는 어떠한 보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조사 당시의 모습과는 달리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특히 장내리의 돌성 유적은 최근에 성벽 위에 시멘트 농로 공사가 이루어져 있고, 동쪽 끝부분에는 석조 납골당이 조성되어 있으며, 성터 안의 중심 부분에는 한우 축사가 들어서 있는 등 유적의 본래 모습이 심각한 상태로 크게 훼손되어 있다. 또한 대도소 자리, 돌성, 초막 자리는 농경지에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반복적인 경작활동으로 인해 인위적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곡리 북실의 집단매장지로 추정되는 덕다리골은 2006년 시멘트 농로 개설과 앞쪽에 개 사육장 및 비닐하우스 설치로 본래 지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또한 시굴조사를 통해 집단매장지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동학농민 100주년 기념”으로 제사를 지낸 곳인 안양마을 계곡부는 현재 돼지축사가 들어서 있어 본래의 유적 모습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 19] 돌성 훼손모습



[사진 20] 안양마을 계곡부 전경

이처럼 유적지는 날로 파괴되고 있으나 이곳이 동학유적지임을 알려주는 것으로는 도로변의 안내판과 크고 작은 나무장승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관리부실로 쇠락한 모습이다. 이러한 설치물들은 단순히 이곳이 유적지임을 알려주는 표식에 불과할 뿐 유적지 보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보은 장내리 및 종곡리의 동학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전사(前史)로서의 의미와 최후 전투지로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이 높은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학계 및 지역 관련단체에서는 이곳 동학유적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화재지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16년 동안 방치한 것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학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동학유적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은 관련 유적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철저한 고증을 통해 학술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념공원 또는 역사교육장 등을 조성함이 바람직하나, 오히려 거꾸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보은동학기념공원을 대규모로 조성하였다. 이 공원 조성지역은 동학 유적

지와는 관련성이 없는 곳이며 일반 공원형태로 조성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으로서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크게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학유적지와 연계한 활용성 및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5. 보은 동학유적지의 보존방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 원형 보존상태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은 동학유적지와 같이 시설물이나 터로 남아 있는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는 본래 위치에, 원형 그대로 그 가치를 유지하여야 함이 기본 원칙이다.

보은 동학유적지는 각각의 유적지가 독립형태로 존재하는 것과 넓은 공간단위로 존재하는 것 등 복합양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내리의 병어리성, 종곡리 북실의 석축 보루, 누청리의 김소촌가는 독립형태로 유적이 존재하고, 장내리 대도소 자리와 돌성은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나 동시대, 동일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므로 하나로 묶을 때 그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종곡리 북실의 경우 전투지 및 집단매장지가 산재하고 있어 마을 대부분이 유적지라 할 수 있으나, 터의 형태로 남아 있어 유적의 범위와 정확한 위치 설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보은 동학유적지는 현재 확인된 독립형태로 존재하는 유적 및 터로 남아 있는 유적지 전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유적의 원형 보존상태, 시설물의 존재유무, 터로 남아 있으나 성격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 가능한지의 유무,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와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보은 동학유적지의 보존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겠으며, 유적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의 보은집회가 열리고 대도소가 있었던 장내리 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관리하는 방안.

장내리 유적은 학술적으로 유적 성격이 규명되었고, 유적은 일부 파괴되었으나 돌성과 대도소 자리 및 초막 자리가 확인되었으며, 새로이 병어리성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병어리성은 돌성에서 남동쪽으로 삼가천을 사이에 두고 약 300m쯤 떨어져 있어 대도소 및 돌성과는 분리하되 1건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 즉, 대도소와 돌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병어리성이 있는 능선 정상부 일원을 한정하여 지정하되 지정신청시 정확한 범위설정과 토지소유주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 지정은 우선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한 후 발굴조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유적 구조와 성격을 밝히고 정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승격 추진함이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동학 교주 최시형 등 북적동학농민혁명군 지도부들이 북실전투 직전에 머물렀던 김소천가를 문화재로 지정관리하는 방안.

북실전투 직전에 이 집을 일본군과 민보군이 기습 공격하여 여러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들이 해를 입었던 역사적인 장소로서 집터와 당시 사용되었던 문밖의 존재, 건물 배치와 구조가 어느 정도 파악되어 문화재로서의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김소천가는 문화재로 지정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 종목은 시·도지정문화재로서 충청북도 기념물의 자격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종곡리의 북실전투와 관련한 석축 보루와 전투지, 집단매장지 등의 유적지는 정확한 성격 규명과 위치 및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후 문화재 지정보존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

하다.

문화재 지정 및 보존은 철저한 조사와 고증으로 원형 및 범위를 찾아 그 본래의 모습대로 진행되어야 함으로, 유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유적 위치 및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문화재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신청에 앞서 해당 유적지에 대해 정밀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범위 및 성격규명은 물론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보은 동학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관련 유적으로 시설물과 터가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학술적으로 그 가치와 의미가 밝혀졌다. 그러나 유적지는 꾸준히 파괴되고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유적지 보존방안으로 문화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유·무형의 흔적들을 잘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문화재의 보존 및 보호는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이기 때문이다.

6. 맺음말

보은 동학유적지는 행정구역상 보은읍 장내리, 종곡리, 누청리 등 3개 리에 산재되어 있다. 이들 유적지에 대하여는 1993년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의 주관으로 여러 학문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종합적인 지표 및 간략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관련 기록 검토, 증언 및 현지조사를 통해 대도소 자리, 돌성, 초막 자리, 전투지, 집단매장지 등을 확인하였고, 장내리 병어리성, 종곡리 석축 보루, 누청리 김소촌가 등의 유적지를 새로이 찾아 학계에 보고하였다. 또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이들 유적지에 대한 현상과 더불어 정비·복원 방안과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계의 노력이 16년 전에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보은 동학유적지는 안내판 설치 이외에 유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축사 설치, 농로 개설, 경작활동 등으로 유적지의 본래 모습이 많이 파괴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소극적 접근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동학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으로 볼 때 한 곳에 오래 머물며 뚜렷한 유구를 남긴 예가 드물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시설물이나 터가 더 이상 파괴·멸실되지 않도록 선별적, 단계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유적의 성격 및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격을 밝히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는 학계 및 관련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유적지 보존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추진 현황과 방향

박 결 순(충북대 사학과)

< 차 례 >

1. 머리말
2. 보은 동학농민혁명의 특징
3. 보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추진 현황
4. 보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방향
5. 맺음말

1. 머리말

올해로 보은 장내리에 동학의 대도소가 설치된 지 117년이 되고, 복실에서 농민군이 무차별 학살당한 지 115년이 되었다. 100년이면 인물이건 사건이건 역사의 페이지에 담아 기억·기념·계승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보은의 동학농민혁명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에 걸 맞는 위상 정립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며 그 부작용도 적지 않았으나, 각 지자체가 자기 지방의 정체성을 역사적 소재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인물이나 운동(사건)이며, 고대보다는 근현대로 내려올수록 친연성이 높다.

현재 전국에 동학혁명을 기념하는 각종 기념(시설)물이 68개가 건립되어 있으며, 기념사업 단체는 37개에 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학혁명의 연구경향을 반영하듯 기념(시설)물의 절반이 넘는 35개(51.4%)가 전라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충북은 6개(8.8%)에 불과하다. 기념사업 단체 또한 14개(37.8%)가 전라에 소재하고 있고 충북은 3개(8.1%)에 불과하다.¹⁴⁾

보은을 동학의 시작과 끝의 고장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선양사업이 너무 빈약하다. 충북에 있는 기념(시설)물 중 이른 시기에 설치된 것으로서 ‘甲午戰亡將卒記念碑閣(1905)’은 청주진위대 장병들이 각출하여 세운 것이고, ‘慕忠祠’(1914)는 慕忠契가 세운 것이니 모두 反東學軍이 세운 것이다. 또한 ‘손병희어록비’(1986)와 ‘손병희 생가와 동상’(1994)은 천도교단에서 세운 개인의 기념물로서 동학의 민주성을 상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충북에서는 보은에 조성된 ‘보은취회기념비’(1995)와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2007)’이 고작인 셈이다. 따라서 보은 동학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기념하며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13년이면 대도소 설치 120주년이 된다. 이에 본고는 보은 동학혁명의 올바른 기억과, 선양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보은의 동학혁명이 지니는 특징과 의의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그간 학술회의 등에서 누차 거론된 것이나, 보은 동학혁명 선양사업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보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추진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14)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와 성격』,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의 역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13~17쪽.

보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사업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에는 이미 수차 지적된 것으로서 ‘지적의 전철’을 밟는 논의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전철을 밟는 논의가 없기를 기대해 본다.

2. 보은 동학농민혁명의 특징

1)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장안

1893년 3월 11일(음)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의 동학교도 수만 명이 집결한 보은집회는 동학혁명의 前史로서 그 서막을 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부에서 동 시기에 열렸던 원평집회를 동학혁명의 ‘잉태’라고 의미 부여하고 있으나,¹⁵⁾ 이는 보은집회와 독자적이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지향이 다른 것도 아니었다.¹⁶⁾

보은집회는 원평집회와 같은 시기에 비슷한 목적으로 개최된 유사한 성격의 것이나, 그 격은 다르다. 우선 보은집회는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 교단의 최고 지도자들이 최초의 집결 명령을 내리고 입장하여 지휘함으로써 전국적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집회였다. 원평집회가 대접주 金德明包의 본거지에서 열렸고 전봉준이 지도자로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전국적 대표성이나 상징성에서 보은집회에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그 차별성은 동학의 성지인 장내리 마을 동쪽 끝에 우뚝 서 있으며 교단을 지휘한 총본부인 大都所의 존재에서 더욱 명확해진다.¹⁷⁾

대도소의 설치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 의의로는 첫째, 동학의 교세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대함, 둘째, 지방 관청이 아니라 중앙 정부를 상대로 포교를 공인받기 위한 활동을 벌임, 셋째, 전국의 동학교도들에게 상징적 공간이자 성지로서 총본부가 생긴 것 등을 들 수 있다.¹⁸⁾ 그런데 대도소는 동학교도 뿐 아니라, 관청이나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며 동학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대도소에서는 통문을 발송하여 동학교도를 통솔하였다. 보은 군수는 연일 대도소로 달려와 ‘倡義’의 부당함을 따지고 조정의 칙령을 전하며 해산할 것을 종용하였으니, 대도소는 대정부 교섭의 창구 역할도 하였던 것이다.¹⁹⁾

『東學亂記錄』에는 장안 마을은 산천이 험악하고 주변 벌판이 넓었으며 동네가 즐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주산인 옥녀봉 아래에 새로 지은 큰 집 한 채(新造一座大屋)가 있어 최시형이 거처하였다고 하였다. 이곳이 바로 대도소였다. 이 기록만으로는 최시형의 거처나 대도소로서 위용을 갖추기 위해 새로 지은 건물인지, 아니면 새 건물을 제공 받았는지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전자가 보다 타당성이 있다. 돌 성을 쌓고 수백호가 넘는 민가에다 4백여 채의 초막을 새로 꾸려 장관을 이룰 정도였으니, 대도소 하나 새로 짓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후에 이두황은 장위영을 이끌고 이곳을 지나며 대도소를 불 질러버림으로써 동학의 상징을 없앴 것이었다.

대도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돌 성이 있었다. 이 돌 성은 대도소와 함께 전국에

15) 문병학, 「김제·원평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의의와 방향」, 『김제 땅 동학농민혁명』,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09, 101쪽.

16) 박맹수, 「金溝 院坪聚會」, 『김제 땅 동학농민혁명』, 10~12쪽.

17) 장내리에 집결한 교도를 통제하기 위해 都會所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大都所가 도회소였을 것이다.

18)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報恩郡, 『報恩 帳內里 東學遺蹟』, 1993, 37쪽.

19) 「聚語」, 1893년 3월 22일, 23일(『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23~24쪽).

서 유일하게 존재한 것이고, 현재 그 자취도 확인할 수 있다. 돌 성 축조는 동학 교단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다른 집회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돌 성을 쌓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돌 성이 비록 평지에 쌓았고 높이가 반장밖에 되지 않아 방어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다방면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었고 효율 높은 통제장치로서 기능하였다. 당시 보은군에서 돌 성을 병란의 조짐으로 감영과 병영에 보고하고, 정부에서도 축구를 곤두세운 것은 군사적 시설로 여겼음을 알려주는 것이다.²⁰⁾ 곧 보은 장내리에 설치된 대도소, 돌 성, 4백여 개의 초막의 존재는 이곳이 동학혁명의 출발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동학농민혁명의 끝, 복실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한 북접농민군은 보은으로 향하였다. 농민군은 2대로 나뉘어 선봉부대는 풍취점으로 들어갔고, 다른 부대는 원암에서 보은 읍내로 들어가 읍내를 점거하였다. 동학혁명 기간 동안 보은읍이 농민군에게 점거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농민군은 처참히 짓밟힌 장내리를 양갓음하듯 민가를 불 지르고 재물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일본군과 상주 유격병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철퇴를 파견하고는 북실로 들어갔다. 여기에는 교주 최시형을 비롯하여 손병희 등 교단 대표들도 함께 있었다. 이때 구와하라[桑原榮太郎]가 이끄는 일본군은 농민군의 철퇴병 2명을 발견하였는데, 이들을 통해 농민군의 실상을 탐지하고는 곧바로 정면 공격을 가하였다. 북실 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북실 공격의 주역은 일본군이였다. 12월 17일(양 1895년 1월 12일) 밤 구와하라 소위는 무방비 상태에서 추위에 몸을 녹이고 있던 농민군을 기습하였다. 한 때 농민군은 혼비백산하였으나, 적의 병력이 많지 않음을 알고는 고지를 지키면서 반격에 나섰다. 17차례의 전투를 치른 군대답게 농민군은 결사 항전하였으나 무기의 열세가 치명적이였다.

북실 골짜기 안에 남아 있던 일본군과 유격병에 의한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었다. 그들은 대항은커녕 추위 속에서 달아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18일 오후 3시경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전투가 아니라 대학살, 곧 제노사이드였던 것이다. 북실은 농민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는 '屍山血海'의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다. 농민군의 시체는 계곡과 나뭇잎 사이에 가득 찼고, 서로 베개를 삼은 듯 겹쳐져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²¹⁾

일본군은 전투 중 총에 맞아 죽은 농민군의 수를 300명으로 보고하였다.²²⁾ 관군 쪽의 보고는 이 보다는 조금 많은데, 포살 또는 칼에 맞아 죽은 농민군이 395명이었고, 골짜기와 숲속에 널려 있는 숫자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군과 관군의 학살이 지나쳐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廉察使가 파견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민심이 흉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군과 관군들은 농민군을 사살한 자신들의 전공을 과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학살의 규모를 은폐 또는 축소하고자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격장 김석중의 진중일기인 『討匪大略』는 그 실상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자료에는 북실에서 피살된 농민군의 실상을 '爲亂砲所斃者 二千二百餘人 夜戰所殺爲三百九十三人'이라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밝힌 야간전투에서 죽은 자의 숫자는 일본군이

20) 신영우, 「1893년 報恩 帳內里의 東學集會와 그 性格」, 『忠北學』 제5집, 충청북도·충북학연연구소, 2003, 33~35쪽.

21) 신영우, 「東學農民戰爭期 報恩 일대와 북실戰鬪」, 『報恩 鍾谷 東學遺蹟』,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報恩郡, 1993, 59~69쪽.

2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68~70쪽.

보고한 300명과 약간 차이가 있으나 관군의 보고와는 2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본군과 관군의 보고가 전투 중 죽임을 당한 농민군의 숫자에 국한된 것이라면, 학살당한 인원이 2,200명이라는 것이다. 즉, 2,600여명이 17일 밤에서 18일 오후 3시 사이에 폐죽음을 당한 것이었으니, 수만 명의 농민군이 불과 수십 명의 일본군에게 당한 처절한 결과였다.

이 때 최시형과 손병희 등 교단의 대표들은 충주 방면으로 피신하였으나, 이로써 북접 농민군은 사실상 궤멸되고 만 것이었다. 즉, 동학혁명은 북실의 골짜기에서 종언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북실전투의 현장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며 ‘북실전투 000주년 기념식’이라 하지 않고 ‘북실전투 000주기 진혼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라는 사실을 잘 표현한 것이다.

3. 보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추진 현황

1) 타지의 선양사업 노력과 성과

1894년 동학혁명이 발발한 뒤, 이를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당대의 反東學 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1890년대부터 일제 강점기 때까지 유럽과 지방 유지들에 의해 23개의 기념비가 전국에 건립되었다. 이는 대부분 반농민군의 순절과 충의를 기리는 기념비로서, 현재까지 건립된 전체 기념물 68개의 34%에 달하는 숫자이다.²³⁾

당시 동학혁명은 亂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동학은 아이러니하게도 ‘革命’을 참칭한 군사 세력에 의해 혁명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야기한 군부 세력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1963년 황토현에 ‘갑오 동학혁명기념탑’을 세웠다.²⁴⁾ 이로써 동학혁명의 기념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동학혁명의 선양사업은 발발 100주년이 되던 1994년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동학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지자체는 이를 지역 정체성과 연결시키기 위해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북의 전주·고창·완주·부안은 물론 장흥(전남), 광주(전남), 공주(충남), 상주(경북), 고성(경남), 홍천(강원) 등지에 민간 기념사업 단체가 연이어 조직되었고,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같은 전국적 조직도 생겨났다.²⁵⁾

동학혁명 발발 110주년이던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17호)이 제정되며 선양사업은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였다.²⁶⁾ 즉, 정부가 주체가 되어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각종 기념사업의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²⁷⁾

23)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와 성격」, 35쪽.

24) 동학혁명을 이용하고자 한 것은 신군부도 마찬가지였다. 신군부는 황토현기념관(1983), 제민당(1983), 구민사(1987), 전봉준 동상 2기(1981, 1987) 등을 건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군부 성립 직후인 1981년 전봉준고택과 황토현전적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신군부는 기념행사에도 간섭하여 정읍에서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념식을 정읍군이 주관하게 함으로써 관제행사로 전락시켰다.

25) 유족회는 동학 연구를 주도하던 역사문제연구소(당시 소장 이이화)의 주선으로 창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동학의 명칭 중 ‘농민’을 붙인데 불만을 지니고 탈퇴한 유족도 있었다고 한다(김재훈,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창립과 활동」,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의 역사』, 41~47쪽).

26)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되어, 3차의 개정을 거쳤다.

27) 제8조(기념사업)에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2010년 현재, 동학혁명 기념사업 관련법인 및 임의 단체는 27개에 달한다. 이들 단체들은 각 지역의 동학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사업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학과 관련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기념시설의 설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읍의 황토현, 장흥의 동학농민혁명기념탑, 삼례봉기기념 역사공원, 장성 황룡전투지, 고창의 무장기포지와 전봉준생가, 홍천의 서석전투지 등은 동학의 대표적 기념시설들이다.

도별로 진행된 기념사업으로는 전라북도가 단연 돋보인다. 전북은 1999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단계별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서는 도내 유적을 고부·고창·남원·전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중기 1단계(1999~2001), 중기 2단계(2002~2003), 장기(2004~2008) 등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우선사업을 제시하였다. 이 용역 결과는 향후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운용과정에서 지침이 되었다.²⁸⁾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 용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황토현에 거액을 투입하여 기념시설의 조성을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하였다.

전라남도도 동학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학술정리사업과 장성 황룡촌 전투지에 상징 조형물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사』(1996)는 도내에서 전개된 동학혁명을 행정 구역별로 정리한 것으로, 6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이다. 또한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자료집』의 간행도 평가할 수 있다.

시·군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기념사업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전라북도 와 도내 시·군에서 진행된 기념사업을 진단한 결과 ①학술조사가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 ②사업추진의 구심점이 있어야 할 것, ③수요자 중심의 시설을 할 것, ④관리운영 계획을 따져볼 것 등을 지적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⁹⁾

2) 보은의 선양사업 추진 현황

(1) 현장의 학술조사

㉠ 보은 서원계곡 정리를 위한 외속리, 구병산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 조사자 :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단장 : 차용걸, 충북대 교수·호서문화연구소장)

- 조사기간 : 1992

- 조사내용

① 외속리면 서원 계곡을 중심으로 인근 유적에 대한 문헌과 현장 조사 등 체계적 정리를 통해 개발의 필연성 제고

② 조사 범위에 대한 지표상 유적을 1/25,000 지도상에 표시

③ 상현서원의 연혁과 봉안 인물에 대한 학술적 가치 판단

④ 동학과 관련된 유적지의 고증

⑤ 선씨 고가 등 주요 문화재 정비안 제시 및 안내문안 제시

이 조사는 외속리면 서원계곡 개발을 위한 문화 관광자원의 조사와 개발이 주목적이었으나, 동학 유적이 본격적인 학술 연구 대상으로 제시된 최초의 조사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조사에서는 보은과 동학집회가 중요한 주제로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당시

추진할 기구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설립을 법제화하였다.

28)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사업기본계획」, 1999 참조. 이 용역의 책임자는 신순철이고, 427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29) 신순철, 「타 시·도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현황」, 『김제 땅 동학농민혁명』, 114~117쪽.

논둑이자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성벽의 복원(문헌기록을 근거로 둘레 180m, 높이 1.51~1.6m로 산정), 농민군 매장지인 북실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주변을 잔디공원으로 조성, 성터 내에 최시형 동상 건립, 보은-상주간 국도변의 장내리 1구나 뒷산(옥녀봉)과 앞산을 잇는 대각 꼭짓점에 상징탑 건립 등의 정비안이 최초로 제시되었다.³⁰⁾

㉠ 동학교도 집결지 사적공원 조성 계획안 설계

- 조사자 :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단장 : 차용걸, 충북대 교수·호서문화연구소장)

- 조사기간 : 1993. 3. 18~9. 30

- 조사내용

- ① 장내리 일원에 대한 현장 측량, 유물 수습, 유구에 대한 시굴 조사
- ② 성터의 원형 복원을 위한 도면 제시
- ③ 대도소 건물에 대한 고종과 건물 복원에 대한 방안 제시
- ④ 사적공원 정비 계획안 제시

이 조사를 통해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즉, 집결지의 둘 성터로 추정되는 잔존 성벽의 하부구조가 발견되어 문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지 성터 유적은東西로 90m정도 남아 있으나, 성벽은 약 70m정도였고,南北은 36~42m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거의 파괴되고 일부에서만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를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3군대를 시굴조사 한 결과, A지점은 성벽의 위쪽 폭이 85cm, 성벽 높이는 110cm로 확인되었다. B지점의 성벽 높이는 80cm, 폭 70cm였고, C지점의 높이는 약 54cm였다.

한편 동학교도가 집결하였을 시 산봉우리에 50명씩 올라가 깃대를 세웠던 '병어리 성'이 장내리 남쪽 해발 330m의 산 정상부에서 확인되었다. 성의 규모는 동서 14.3m, 남북 10.5m의 타원형이었는데, 석루의 발견은 큰 수확이었다. 또한 장내리 29-1, 29-2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대도소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로서 충북지역 민가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선병국 가옥 등 도내 10개 고가를 분석하고, 복원 방안으로 4개안을 제시하였다.

이 조사는 사적공원 정비계획안으로서 평지 성터의 복원(총 둘레 220m 추정, 3,200㎡ 범위 확보), 대도소의 복원, 병어리 성의 정비, 상징탑의 건립(최시형 동상), 주차 및 편의시설 마련 등을 제시하였고, 장기적 계획으로 초막의 복원을 제안하였다.³¹⁾

㉡ 동학교도 집단 매장지 확인 및 자료조사

- 조사자 :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단장 : 차용걸, 충북대 교수·호서문화연구소장)

- 조사기간 : 1993. 3. 18~11. 30

- 조사내용

- ① 보은 서원계곡 정리를 위한 의속리, 구병산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때 확인된 농민군 집단 매장지인 성족리, 종곡리 일원에 대한 현장 조사
- ② 북실전투와 관련된 문헌 조사
- ③ 농민군 집단 매장지 확인 및 시굴 조사(유체 발견 시 감정 실시)
- ④ 한국 근대사의 현장 보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정비 방안 제시

30)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報恩郡, 『外俗離 書院溪谷 文化遺蹟』, 1992 참조.

31)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報恩郡, 『報恩 帳內里 東學遺蹟』, 1993 참조.

이 조사는 복점 농민군이 사실상 궤멸된 복실전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농민군 집단 매장지를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 조사에서는 중요한 사실도 밝혀냈다. 즉, 종곡리 다라니 마을 뒷산에 농민군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석축 유적을 확인한 점, 강신리 안양마을 동쪽 첫 번째 계곡에서 인산 성분이 함유된 토층을 찾아내어 이를 집단 매장처의 하나로 추정된 점, 당시 동학의 수뇌부가 저녁 식사를 하다가 토벌군에 최초로 공격을 당하였던 김소촌가(김세희의 집)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일부가 현존함을 확인한 것 등이 새로 밝혀낸 중요한 사실들이다.

한편 이 조사자는 정비·복원안으로는 다라니 뒷산 석축 보루의 발굴 조사와 복원, 안양마을 동쪽 첫 번째 계곡에서 발견된 인산 성분이 함유된 흙을 봉안하여 이곳에 위령탑을 건립하되, 당시의 전투상황을 부조로 조각할 것, 김소촌가의 매입과 원상 복원, 가장 대표적인 동학의 실제 현존 장소로서 사적으로 지정 신청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³²⁾

(2) 동학기념공원조성의 추진과 문제점

보은군은 2001년 7월 「동학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과업은 보은 동학 유적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의 소재로 하며, 동학을 주제로 한 독창적인 테마형 문화·체험시설로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업의 범위는 성주리 산 16번지 일원 104,700㎡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4년을 시한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사업을 구성하였다.

- 제1단계 사업(2001~2002)
 - 용지 매입·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 부지 정지 등 기반 시설 공사 추진
- 제2단계 사업(2003~2004)
 - 공원조성사업 완료
 - 동학기념관 건립

「동학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기본계획」은 가칭 동학기념공원을 기념의 공간(회고의 장)·체험의 공간(민중의 장)·계승의 공간(생명의 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도입 시설과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³³⁾

<「동학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기본계획」의 공간별 활동 프로그램과 도입 시설>

공간의 성격	기능	활동 프로그램	도입 시설
기념의 공간	교육·학습	· 전시 영상매체 등을 통해 보은 동학운동을 이해·추모 · 동학정신을 교육·연수	· 동학기념관 · 기념 및 상징조형물 · 추모 공간 등
체험의 공간	문화체험·레크리에이	· 농민의 자주적 행사 및 품목과 사물놀이 재현	· 야외공연장, 놀이마당 · 야외 전시, 이벤트장 등

32)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報恩郡, 『報恩 鍾谷 東學遺蹟』, 1993 참조.

33) 보은군, 「동학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기본계획」, 2001.

	선	· 각종 이벤트· 전시행사 등 관람 참여	
계승의 공간	휴식· 사색	· 동학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 석하여 조형물로 표현 · 인간 존중, 환경 친화 메시지 전달	· 피크닉장(잔디원) · 휴게광장 · 자생 초화원 · 조각원 · 수변휴게소 등

이 계획(안)은 의견상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중요한 용역이 동학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건축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타지와 차별화되지 않는 정형적이고 박제화 된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만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계획이 진행되던 2003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³⁴⁾ 우선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관련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공원의 명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비록 가치이기는 하지만 ‘동학기념공원’은 기념사업의 주제가 동학인지 동학혁명인지 모호하다는 것이고, 보은이 동학의 전국성을 지니고 있음을 표현하는데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원시설의 완공 후 관리 운영에 관한 사실이 누락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즉, 연면적 2,024㎡의 동학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학에 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전시관 수준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이 문제를 지적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안은 첫째, 공원의 명칭과 주제를 ‘동학농민혁명공원 기념공원’으로 할 것, 둘째, 전시관의 실시설계에 앞서 전시계획을 먼저 수립할 것, 셋째, 이 시설의 관리 운영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미리 선발하여 이 계획의 조성사업부터 참여시킬 것, 넷째, 기념시설이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발전할 수 있는 관리 운영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 등이었다. 특히 여기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열의와 의지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³⁵⁾ 그러나 이후 이 지적과 대안 제시가 실시 설계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는 회의적이다

이 계획안은 전체 사업비를 124억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연차별 공사비는 2002년 일휴게 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공사에 6억 3천만 원, 2003년 동학기념관을 제외한 공원 조성공사에 48억 6천만 원, 2004년 동학기념관 건립(내부 전시공사 포함)에 56억 8천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았다. 즉, 전체 사업비 124억 중 용지 매입 보상비 등이 12억 3천, 조성 공사비 111억 등 공사비에만 112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작 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 수집이나 전시물 제작, 영상물 제작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전시관이 제대로 건립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역사성이나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그 이후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건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시관과 다른 기념 시설과의 조화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고려하지 않은 하드웨어 계획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그런 전시관은 역사의 혼을 담지 못한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이는 보은군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폐단이지만, 앞으로 보은에 동학기념관을 조성하려면 반드시 전문 인력의 배치와

34) 신순철, 「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문제점」, 『忠北學』 제5집, 충청북도·충북학연구소, 2003.

35) 신순철, 「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문제점」, 58~59쪽.

자료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은군은 2003년 말 제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4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성안하였다. 이 안에서 수립한 3단계 사업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³⁶⁾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단계별	사업 시기	사업 추진 내용	비고
1단계	2003년 완료	· 2003년 조성 완료 · 주차장, 피크닉장, 휴게공간, 간이화장실 이용 중	
2단계	2004년	·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2004. 5 준공 예정) · 용지매입 완료 · 현황 측량,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 관련 인허가 추진 중(2004년 공사 착공 예정)	
3단계	미정	· 동학기념관 건립 · 실내외 전시물 계획 · 별도 종합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이 계획의 2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목 공사비 15억, 조경 공사비 28억, 조형물 공사비 7억 등 총 50억 원이 계상되었다.

2007년 1월 보은군은 동학혁명기념탑의 설계를 공모(8억 원)하여 응모한 6개 작품 중 ‘민(民)의 눈(目)(이두한)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보은군은 이 작품 선정의 사유로 ‘동학군 최후 격전지인 복실전투의 역사성과 혁명 정신을 가장 잘 표현했고 주변 조형물과도 조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들었다.³⁷⁾

현재 이 기념공원에는 국궁장·동학농민혁명 주요연표·연꽃 폭포·숲의 쉼터, 인내천정·민중광장·동학동산·하늘길·빛의 계단·충의정·동학농민혁명기념탑 등의 기념물(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이지 못하다. 여기에 투입한 엄청난 예산에 비하여 동학혁명의 정신을 기념할만한 제대로 된 기념물이 없거나,³⁸⁾ 보은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³⁹⁾는 등의 비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은군 홈페이지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관광명소의 자연관광관에서 ‘자연 친화형 생태 공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⁴⁰⁾ 역사 관련 기념공원을 자연관광관의 ‘기타 자연명소’로 소개한 사례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 자체가 복실이 지니는 역사성을 부정한 꼴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웅당 역사기념공원이 우선이고 자연 친화형은 그 다음의 조건이다. 이 같은 인식은 보은군 스스로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역사기념공원으로 부르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6) 보은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04.

37) 《뉴시스》, 2007년 1월 29일자.

38) <http://blog.naver.com/sunyoudo>. “동학혁명기념공원이라고 해서 가보았는데 참으로 돈만 들었지 뭔가 동학혁명기념이 될 만한 것이 없다. 기념조형물은 관계없는 황궁에서 전투장면 등 주위의 행한 대리석으로 돈만 들인 것 하고는 정말로 허가 끝끝 차고만 말았다. 같이 간 손님들에게 민망하였다.”

39) <http://cafe.naver.com/cjsblee>. 이 운영자는 공원 내 정체불명의 성벽 대신 보은의 삼년산성이나 호점삼성의 성벽을 본 따 만들었어야 할 아쉬움과, 복실에 당연히 있어야 할 참배단 등 참배 시설의 부재를 지적하고, 농민군의 상징인 돌 성을 복원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40)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tourboeun.go.kr/>).

요컨대 지금까지 보은의 동학혁명기념공원 추진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따른 효율적 추진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진행된 기념공원 조성사업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시행착오를 향후 선양사업 방향 설정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보은동학제

보은 집회 110주년이 되던 2003년부터 보은동학제가 시행되어 금년으로 8회에 이른다. 보은동학제는 보은집회를 기념하기 위해 2일간에 걸쳐 장내리와 뱃들공원, 동학공원 등에서 비교적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보은문화원이 주관하고 보은동학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데, 2010년의 제8회 보은동학제의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주관단체).⁴¹⁾

○ 첫째 날(4/23)

- 동학사료 및 낚전 전시회(동학추진위원회, 꿈지락놀이회)
- 청소년 동학장사 씨름대회(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
- 동학 백일장/동학 퀴즈한마당(BBS보은군지회)
- 동학민속체험장(운봉서각공방, 숲 사랑회)
- 어린이 인형극 공연(교육발전협의회)
- 117주년 보은취회 기념행사(장안동학농민회)
- 청소년 동학 효 한마음 축제(보은교육청)
- 동학 학술세미나(보은동학기념사업회,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기념공연(적십자봉사회 보은지구협의회, HCN 충북방송)

○ 둘째 날(4/24)

- 장승세우기/진달래 묘목 가꾸기(동학추진위원회)
- 115주기 보은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복실청년회)

이 밖에 이전에 실시된 보은동학제에서는 동학사료전시회, 가족과 함께 하는 동학유적지 순례대행진, 마당극, 살풀이공연 등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보은동학제는 연례적이며 일과성 행사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행사 구성과 규모이면 다른 지방에서 거행되고 있는 동학 관련 기념행사에 비해 크게 손색은 없다고 사료된다. 다만, 동학혁명의 시작과 끝의 고장으로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특징을 좀 더 선연히 드러낸 행사의 개발이 요구된다. 예컨대 행사의 일환으로 돌 성 쌓기와 초막 짓기 경연대회는 보은만이 할 수 있는 동학 관련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보은동학제를 진행하는 주관 단체는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2002년 설립)이다. 이 단체는 1999년 구성된 가칭 '범군민 보은동학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모태로 결성되어 동학제는 물론 마라톤대회와 학술자료집 발간 등 학술과 출판사업 및 유족 발굴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보은집회를 기념하여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는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기념사업회(2001년 설립)도 있다. 이 단체는 설립 이후 해마다 보은 동학곳 '사람이 하늘이니'를 공동 개최하거나 후원하고, 동학 유적지 답사의 안내를 해오고 있으며, 향후 보은의 동학혁명을 홍보하고 유적지 보존과 기념물 조성에 나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와 지향이 같은

41) 보은문화원 홈페이지(<http://www.becc.or.kr/notice/read.php3?readnum=102>).

두 단체가 같은 지역에 별립하며 각각 다른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어색하다. 선양사업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라도 두 단체의 협조와 통합이 필요하다.

4. 보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방향

앞장에서 보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할 선양사업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선양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적 지정 신청

보은 장내리와 북실은 동학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장소이므로 마땅히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현재 동학 관련 유적으로서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전봉준선생고택지(제293호, 1981. 11. 28 지정), 황토현전적지(제295호, 1981. 12. 10 지정), 우금치전적지(제387호, 1994. 3. 17 지정), 황룡전적지(제406호, 1998) 등 네 곳이다. 이곳들은 모두 사적지로 지정하여 기념할만한 중요한 유적지임에는 틀림없으나, 동학 연구가 전라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시거나 군사 독재 정권의 역사 이용 의도와 일정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다.

현재 충청지역의 동학 관련 유적지로 밝혀진 곳은 32개소에 이르는데, 보은은 김소천가·북실 집단 매장지·북실 전투지·장내리 집회지 등 4개소이다.⁴²⁾ 이곳들은 이미 사적으로 지정된 다른 동학 관련 유적지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비록 원형은 크게 상실하였으나 현장에서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장내리와 북실은 사적으로 지정될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도 사적 지정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장내리 집회소는 1993년 보은군에서 사적 지정 신청을 위해 충청북도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도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학술 조사를 더 진행하여 보완하라는 사유로 회송되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는 접수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보은군은 후속 연구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보은 동학혁명에 대하여는 그간 연구업적이 많이 산출되었으나, 현장의 정밀 조사를 거친 후에 재신청을 한다면 사적 지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보은군은 내년도 예산에 장내리 학술조사 예산을 편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보은집회 120년이 되는 2013년 이전에는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실 또한 실태 조사와 발굴을 실시하여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로부터 그 공간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공인을 받는 것은 선양사업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수순이다. 보은 동학 유적의 사적 지정은 더 이상 동학의 중심이 전라지방이 아니었다는 학계의 공인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

2) 보은집회 120주년 중장기 기념사업의 기획

2013년이면 동학의 전사로서 혁명의 서막을 연 보은집회가 1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하여 3개년 또는 5개년의 중장기 기념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기념사업은 대부분 일회성이고 즉흥적이며 행사를 위한 행사로 치러진 경향이

42) 충청북도,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2006, 209~241쪽.

다분하다.

먼저 이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보은집회 1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에는 단체장과 민간(전문가)이 공동 위원장을 맡되, 여기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선양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기념사업의 방안들은 모두 중장기 기념사업으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즉, 보은 동학 관련 자료의 수집·번역·편찬, 동학 유적지 종합 실태조사 학술용역 시행을 통한 정비 및 복원, 사적 지정 신청,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다큐멘터리의 제작과 보급 등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당년에 계획하여 시행하기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보은집회 120주년 기념사업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에 나서도 이른 것만은 아니다.

3) 충청북도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필요

현재 동학과 관련한 선양사업이 가장 활발한 전라북도는 道가 주도하고 시·군이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미 1999년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기본계획」이라는 방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전북을 고부권·고창권·남원권·전주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적지의 역사적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기념사업과 환경정비의 우선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이에 따라 중기 1단계(1999. 7~2001. 12) - 중기 2단계(2002. 1~2003. 12) - 장기사업(2004. 1~2008. 12)으로 나누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⁴³⁾ 전라남도도 도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나, 황룡촌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고 연구자료집을 출판하는 등 선양사업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2006년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충북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연구 총괄:김양식)를 간행한 정도가 고작이다. 타 지자체에 비해 충북은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척박하다.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근현대사의 인물이 많지 않고 역사의 소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학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중요한 인물도 많고 중요한 유적지도 많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특화시킬 역사 소재인 것이다. 따라서 충청북도가 나서서 충청북도 동학혁명 선양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은 등 각 시·군의 선양사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이 계획에는 도내 동학 관련 유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와 발굴, 관련 문헌기록과 자료 조사, 사업아이템의 개발과 우선순위 결정, 사업의 추진 주체 선정과 사업기간, 예산 등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 보은 외에 일부 도내 지방에서도 동학 관련 선양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충청북도는 시급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선양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동학기념관의 건립

보은군이 2001년 성안한 동학기념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2단계 사업(2003~2004)으로 동학기념관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기념관은 스카이라인과 어울리는 한국적 지형의 멋을 건축 이미지에 적용하여 경사진 대지의 조건을 최대한 살린 환경 친화적 건축과, 수평적 이미지를 통해 동학의 평등사상을 강조하는 상징적 건축 기법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부지 면적은 3,530㎡(연면적 2,024㎡, 건축면적 1,048㎡)로, 지상 1층(전시실, 홀) 지하 1층(세미나실, 학예실, 도서자료실, 유물 정리실, 수장고, 기계실 등)으로 계획하였다. 그

43)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사업기본계획」, 1999 참조.

러나 전시관의 건립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전문 인력의 충원이나, 전시자료 수집 계획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평면 배치도나 단면도는 보은 동학혁명의 특징을 부각하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2004년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동학기념관이 다시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전시물 계획과 함께 미정사업으로 되어 있어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 현재 동학 관련 전시관으로는 황토현기념관(정읍, 1983), 동학혁명 백주년기념관(전주, 1996), 전주역사박물관(전주, 2002) 등이 있다. 보은에 동학전시관이 세워진다면 타지 기념관의 건립과정과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건립된 유사 전시시설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수적이다. 보은 동학전시관은 타 지역의 전시관과는 차별화 된 전시 계획이 필요하다. 정읍에서도 볼 수 있고 전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보은에서 다시 본다면 관람객은 식상할 것이고, 다시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은의 동학기념관에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구분한 전시가 필요하다. 즉, ① 동학의 메카이자 전국적 상징 공간으로서의 보은, ② 북적과 충북 동학 중심으로서의 보은, ③ 장내리와 북실로 특화된 보은이 그것이다. 그리고 보은 동학전시관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립 위치 등이 현장성을 지녀야 하며, 대도소·돌 성·초막 등 보은 특유의 동학 소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보은의 동학기념관 조성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전시계획과 자료수집, 전시관 건축 등에 처음부터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가 있으나, 실질적인 전문가 자문은 손꼽을 정도이고, 그나마도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충북에는 동학을 연구하여 많은 연구업적을 낸 연구자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있다. 이 분들의 연구 결과와 조사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고,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망라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북대학교에는 지역문화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고 그간 동학 유적지 조사 등 다방면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 온 중원문화연구소가 있다. 향후 보은의 동학기념관 조성이나 학술 조사사업 등은 중원문화연구소와 연계를 강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행정기관이 전문가와 전혀 상의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낭패를 본 사례는 전라북도 와 고창군의 사례에서 잘 볼 수 있다. 반면, 전주시가 전주박물관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학예사를 미리 선발하여 성공적으로 전시관의 개관을 마무리하고, 완주시가 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역사공원을 만든 것은 대조되는 것이다.⁴⁴⁾

5) 보은 특유 유적(대도소·돌 성·초막)의 복원과 특화

대도소는 동학의 가장 상징적 장소이자 보은에만 있었던 유일한 존재이다. 현재 대도소의 위치가 확인되었고,⁴⁵⁾ 복원을 위한 기초 사료도 확보하였으며, 부지 매입 등 복원 조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복원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 또한 선행의 조사 연구를 통해 이미 구체적인 복원 방침으로서 전제 조건과 세부 계획도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사료의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매우 적절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또한 복원 계획안으로 남측 진입형의 중대형 와가·서측 진입형의 중형 와가·남측 진입형의 중형 와가·

44) 신순철, 「타 시·도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현황」, 106~111쪽.

45) 현재 논둑 곳곳에 대도소의 주춧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큰 돌들이 남아 있다.

남측 진입형의 대형 와가 등 4개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역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된다.⁴⁶⁾

대도소의 복원과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 있다. 대도소와 돌 성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 『聚語』에는 돌 성과 대도소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聚語』에는 돌 성의 규모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현장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돌 성은 대도소와 함께 보은에만 존재하는 국내 유일의 동학 유적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동학도들의 방어시설이자 해방구였던 이곳을 병란의 조짐으로 우려하였다. 따라서 돌 성을 정비하고, 지금 논둑에 남아 있는 자갈들을 활용하여 돌 성의 일부나마 현장에 재현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이다.

대도소·돌 성과 함께 복원의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초막이다. 초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초막은 당시 농민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했던 농막과 유사하였을 것이며,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복원하는 데에는 큰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4백여 개 전체를 모두 복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몇 개의 초막을 복원하고 나머지는 배경 그림 등 적절한 기법으로 효과를 내면 될 것이다.

대도소·돌 성·초막은 다른 어떤 지방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보은만의 특징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대도소는 현장에 복원하되, 돌 성과 초막은 현장에 적당한 공간을 조성하여 부분적으로 복원해도 무방할 것이다. 만약, 돌 성과 초막의 현장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나중에 조성 계획인 전시관의 야외 전시공간을 이용하여서라도 반드시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6) 기념 조형물의 조성

현재 동학 관련 선양사업으로 진행된 기념 조형물은 비석이나 탑, 동상, 상징 조형물이 주종을 이룬다. 현재 보은에는 북실의 기념공원에 동학농민혁명기념탑이 하나 서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탑은 북실이 지니는 역사적 성격과 특징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우선 대도소 터, 돌 성, 김소천가, 북실 전투지와 집단 매장지에는 표석이나 기념비를 건립하여야 한다. 앞으로 대도소를 중심으로 복원될 이곳에는 동학혁명정신을 제대로 담아내는 상징조형물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 대상의 하나로서 최시형의 동상 건립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최시형의 동상은 고향인 경주 황성공원에 건립되어져 있다. 그러나 보은과 최시형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곳에 건립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전국의 동학도들에게 보은 집결 명령을 내리고 직접 이곳에 머무르며 집회를 지휘하였다. 또한 그를 비롯한 동학 지도부가 김소촌가에서 저녁을 먹다가 일본군에게 습격을 당하였고, 이것이 북실 전투의 시작이 되었다. 따라서 동학이 한국근현대사에서 지니는 의미를 감안한다면 그의 동상을 단순히 태생적 배경으로 경주에 세우는 것 이상으로 동학의 시작과 끝을 지휘했던 이곳에 세우는 것이 의미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사실이 있다. 유적지에 세우는 안내판은 일정한 규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안내문(외국어 병기)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감수라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7) 북실의 발굴 조사 및 추모 공간의 마련

46)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報恩郡, 『報恩 帳內里 東學遺蹟』, 74~78쪽.

복실은 동학 농민군의 희생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1993년의 집단 매장지에 대한 기초 조사 때 5군데의 시굴 조사를 하였으나, 집단 매장과 관련한 구체적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안양 마을 동쪽 첫 번째 골짜기의 토양 시료에서 0.4~0.8%와 0.15~0.4%의 인산 성분이 함유된 분석 결과를 얻은 바, 이곳이 집단 매장지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⁷⁾

따라서 이곳의 집단 매장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군의 시체가 계곡과 나뭇잎 사이에 가득 찼고, 서로 베개를 삼은 듯 겹쳐져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屍山血海’를 연출하였다는 기록으로 보면, 당시 가족이나 지역민이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디엔가는 집단 매장지에 대한 흔적은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단 학살과 매장의 명확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사적 지정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발굴 결과 유골 또는 기타의 흔적 등으로 집단 매장이 확인되면, 이곳에 추모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추모공간에는 무명 농민군을 추도하는 위령총을 만들고, 관람객들이 잠시 머물러 그들을 추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나 공간은 제단이나 분향소 등 무거운 분위기 보다는 독립기념관 추모의 자리처럼 한줄기 물줄기가 솟아올라 마르지 않는 분수를 만들고, 그 주변에 당시의 참상을 파노라마 조각을 한 부조를 제작하면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8) 온라인 홍보의 강화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온라인 홍보의 주체는 지자체나 문화원 또는 기념사업회 등이 될 수 있다.

현재 보은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보은문화관광’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이를 클릭하면 관광명소-테마여행-축제 및 행사-여행도우미-참여마당 코너가 있다. 그런데 동학혁명기념공원은 관광명소의 자연관광 코너에 말티고개, 자연휴양림 등과 함께 ‘기타 자연명소’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공원을 이처럼 소개한 것은 보은 이외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테마 여행을 소개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당일 코스 3개를 추천하고 있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소개한 것은 <추천 1> 뿐이며, 선병국 가옥은 추천하면서도 바로 그 앞에 있는 장내리를 소개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장내리에 안내판과 장승을 세운 취지가 무색하다.

테마별 코스의 역사관광코스에서는 법주사와 선병국 가옥 등 15개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동학 관련 유적지로 추천하고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언필칭 보은이 동학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나, 정작 분향에서 이렇게 홀대하니 다른 지역에서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대하기가 난망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제작한 영상물의 ‘스러지는 꿈’ 부분에 복실이 빠진 것을 탓할 계제가 없는 것이다.⁴⁸⁾

보은군 홈페이지에는 ‘동학의 성지 보은’이라는 별도의 코너를 설정하여 동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간 발행한 동학 자료집과 관련 논문을 DB화하여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유적지 사진 등도 제공하여야 한다. 이처럼 잘 정리된 온라인 홍보물은 보은문화원이나 보은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공유함은 물론, DVD 등으로 제작하여 배

47)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報恩郡, 『報恩 鍾谷 東學遺蹟』, 34~35쪽.

4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제작한 『청소년을 위한 역사탐방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를 찾아서』는 모두 10장으로 동학의 유적지를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 제 9장 ‘스러지는 꿈’에서는 황화대 전투지, 태인 전투지, 전봉준장군 피체지, 송장배미, 백화산 교장 바위, 동학농민혁명기념탑, 대둔산항쟁비를 소개하고 있으나, 보은 복실 사진은 소개하지 않았다.

포함으로써 홍보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9) 보은(충북) 동학 소재 문화 콘텐츠의 개발

○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동학의 본거지를 자처하는 전주에서는 지역방송 차원에서 여러 차례 동학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방영되었다. 2006년에는 포항 MBC-TV가 창사 34주년 특집으로 2부작 '동학'(1부 : 사람이 하늘이니, 2부 : 111년만의 증언, 경상도 동학농민혁명)을 제작, 방영하였다. 이처럼 전라와 경상지역에서는 지역 방송이 동학을 소재로 다큐물 등을 제작, 방영하였는데 충북은 그런 적이 없는 듯하다. 따라서 보은군과 충청북도가 적극 나서 지역 방송사를 섭외하여 사실에 충실하고 감동을 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우선 지역에 방영하고, 전국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방송사에 방송 제작의 적극적 동기 부여를 위해 일정액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문학 작품과 공연물의 공모

지금까지 동학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은 시와 소설을 합하여 모두 284점에 이르는데, 이 중 92%인 259편이 1980년대 이후에 발표되었다.⁴⁹⁾ 그러나 보은이나 충북을 소재로 한 것은 전무하다. 또한 보은동학제 등에 동학을 소재로 한 공연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초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문학작품을 공모하여 출판, 보급하고, 공연물을 공모하여 도내와 전국을 순회 공연하는 것은 보은과 충북지역의 동학을 홍보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다.

○ 보은을 메카로 한 동학 답사코스 개발, 안내 책자 제작 배포

아직도 충북에서 동학 유적지 답사를 전라도로 떠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충북지역 내에 동학 관련 유적지 32개소(1894년 이전 유적 11개소, 이후 유적 21개소)가 조사 보고된 바 있다. 도내 동학 관련 유적지를 권역별·주제별로 잘 분류하여 1일~3일 일정의 테마기행 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해설하는 안내 책자(유적지 지도 포함)를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보은은 당연히 그 중심으로서 메카가 되어야 한다. 개발한 답사 코스는 군청이나 문화원, 교육청 등은 물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맺음말

본고는 지금까지 추진된 보은의 동학혁명 선양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하여야 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보은은 동학혁명이 시작한 곳이자 끝난 곳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역이다. 따라서 보은의 동학혁명 선양사업은 이 같은 역사적 특징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은군에서 동학혁명 선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나, 추진 현황이 모두 바람직하고 방향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다.

2013년이면 보은집회 120주년이 된다.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으로 '보은집회 1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칭)를

49)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와 성격」, 23~25쪽.

구성하고, 여기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사적 지정, 충청북도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동학기념관의 건립, 보은 특유 유적(대도소·돌 성·초막)의 복원과 특화, 기념 조형물의 조성, 복실의 발굴 조사 및 추모 공간의 마련, 온라인 홍보의 강화, 보은(충북) 동학 소재 문화 콘텐츠의 개발 등은 그 같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보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연구와 전망

신 영 우(충북대 사학과)

<차 례 >

1. 머리말
2. 보은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관련 자료
3. 보은에서 활동한 동학도 관련 자료
4. 보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연구 전망
5. 맺는 말

1. 머리말

1894년에 보은에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적지 않았지만 이들에 관한 조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학교단이 처음으로 보은 장내리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전국의 동학 조직을 이끄는 본부로 삼은 것은 무엇보다 보은에 동학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보은의 대도소를 보위할 세력은 인근 군현들인 영동과 옥천 등지에서 기대할 수 있었다.

보은에는 교주 최시형이 의지할 수 있는 여러 동학마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들 마을을 중심으로 역량이 있는 지도자들도 활동하였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다. 동학 교단의 자료를 보면 보은에서 출발한 동학농민군이 논산에서 전봉준 군대와 합류하고, 공주 우금치전투에 참여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보은의 동학과 동학농민군에 관한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보은에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하나의 시론이지만 보은의 사례연구에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보은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관련 자료

『시천교종역사』 등 동학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에서 보은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주로 해월 최시형이 보은에 은거하던 내용과 보은집회에 관해 쓴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봉기에 참여한 인물들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보은지역의 사례 연구에 토대가 될만한 내용이 없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은에서 동학을 포교하고, 보은집회 당시에 이에 참여하였으며, 1894년 기포령에 호응해서 봉기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에 관한 자료들이다. 보은의 동학과 동학농민군지도자들에 관한

분량은 많지만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시기에 보은과 관련한 내용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상을 기록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보은에서 활동한 지도자들의 이름은 다른 군현에 비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9월 재봉기 이후 문경현감의 정보보고에 따르면 보은을 비롯한 충청도 남동부 각 군현의 동학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⁵⁰⁾

報恩 崔時亨(大魁首로 法憲이라 하며 報恩帳內(壯安)에 거주)
 黃河一(吏)
 姜永奭
 懷仁 柳日秀
 懷德 金福天
 忠州 成斗煥
 沃川 朴石奎
 文義 吳一相
 靑山 李國賓
 淸州 徐一海
 永同 孫光五
 黃澗 趙景煥

같은 자료에서 동학교주 최시형은 "소위 최법헌은 지금은 靑山 文巖里에 살고 있는데 읍내와의 거리는 10리이다. 그는 수십만의 군중을 인솔하고 보은 장안에 모여 40여리를 연락하고 있었으므로, 기세가 크게 떨치었다."고 보은 장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고와 다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문경 관아에서 기찰한 것으로는 최시형이 보은 장내리와 청산 문암리를 왕래하며 동학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

이러한 최시형의 거처에 출입하며 각종 의식을 같이 치루며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이 교단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자연히 보은을 비롯한 충청도 여러 군현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었다.⁵¹⁾ 현재의 보은 지역에는 황하일과 강영석 그리고 류일수가 지도자로 파악되었다.

일본군이 동학의 기포령 이후 충청도의 동학 '巨魁'로 파악한 인물들 중 보은과 회인의 인명은 변화가 있다. 회인은 姜永奭과 朴聖模, 보은은 黃河一과 任局鎬였다.⁵²⁾ 강영석은 회인의 동학지도자로 파악이 되었고, 황하일과 더불어 임국호는 보은의 지도자로 더 조사가

5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51) 보은과 상주 등지에 은거생활을 할 때 정성으로 최시형을 모신 사람들이, 다음 자료와 같이, 황하일을 비롯한 이 지역 동학지도자들이었다. 『本敎歷史』 布德二十六年乙酉六月에 神師 | 因大神師顯靈호야避禍호시다 時에 忠淸道觀察使沈相薰과 丹陽郡守崔喜鎭이 欲執神師리니 神師夜夢에 承大神師靈敎호야 暫避迹於報恩長安이러니 蔣漢柱金演局이來神師所호야 急告曰姜時元李敬敎金成集이被執矣니이다 神師 | 與蔣漢柱로往公州麻谷호야 絶外人交涉호다 八月에 神師 | 還報恩이라가自永川으로至花溪洞호다 九月에 神師 | 率家衆호고往尙州前城村호야 寄接焉호니 時에徐仁周黃河一이助其調度러라 當寒節호야 神師眷室이無綿着이러니 道人李致興이獻白木七疋호다

5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84-196.

된 것이다. 실제로 보은 동학의 거두는 임국호라는 별칭으로도 기재되었던 임규호였다. 보은집회시에 충경(忠慶)이란 포명(包名)을 받고 대접주로 부각되었던 인물이 임규호(任奎鎬)였던 것이다.⁵³⁾

이에 東學首領 崔海月은 친히 道衆의 行列 前에 나저서 일일이 道衆을 慰闋하고 別로 각 包(包라 함은 그 때 그 結社의 小團體名)의 大接主와 包名을 差定하고 忠慶大接主에 林奎鎬, 淸義大接主에 孫天民, 忠義大接主에 孫秉熙, 文淸大接主에 任貞宰, 沃義大接主에 朴錫奎, 關東大接主에 李元八, 湖南大接主에 南啓天, 尙公大接主에 李觀永 등을 任命하여 廟堂을 直衡하기로 하고 旬餘를 示威하다가 魚允中의 奉勅挽留로 또 한 번 後期를 두었다.

이와 가티 道衆의 示威가 頻頻하고 기세가 당당함을 본 각지의 인민이 陸續入道 하매 이에 各包의 接主들은 제각기 包所를 정하고 일체의 사무를 진행한 바 마치 각 郡 혁명위원회가 急施된 감이 잇섯스며 其中에도 沃川 朴錫奎, 報恩 任奎鎬, 禮山 朴熙寅, 文義 任貞宰, 靑山 朴元七, 扶安 金洛喆, 茂長 孫華仲, 南原 金開南, 淸風 成斗煥, 洪川 車基錫, 麟蹄 金致雲 등은 각히 該郡으로서 本包를 조직하고 都所를 別置하였스며 全琫準은 자기 부하의 道衆을 다리고 金溝郡 院坪에 駐在하였다.

임규호는 본래 청주목의 오창 출신이나 동학에 들어간 후 1890년대 초에는 보은 일대에서 많은 사람을 입도시켜서 대접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임규호도 자세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황하일은, 주2)에서 보이듯, 동학의 敎史에서도 비중이 있는 인물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는 황하일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생몰년 미상. 동학접주. 일명 해일(海一). 보은 출신.

남접계(南接系) 동학지도자로서 1883년(고종 20) 3월 서인주(徐仁周, 璋玉 또는 一海라고도 함.)와 함께 당시 동학교문의 지도자 최시형(崔時亨)을 만나 입도하였다.

1885년 관의 탄압을 피하여 피신생활 중인 최시형의 은신처를 주선하는 등 북접(北接)과도 긴밀한 협력을 하였다.

1880년대 후반에는 전봉준(全琫準)을 서인주에게 소개하여 동학에 입도시켰으며, 1894년 3월 전봉준 등이 중심이 되어 동학농민군이 무장에서 기포(起包)할 때까지 서인주 등과 함께 남접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1893년 3월 동학교도가 중심이 되어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의 기치 아래 보은취회(報恩聚會)가 이루어졌을 때, 최시형 등과 함께 보은취회를 주도하였으며, 남접과의 적극적 연대에 주력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은취회와 함께 당시 전라도 금구 원평에서 이루어졌던 남접 중심의 ‘금구취회(金溝聚會)’의 괴수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다.

1894년 9월 남접·북접의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기포할 당시, 김연국(金演局)·권병덕(權秉惠) 등과 함께 보은에서 기포하여 논산으로 집결하였다. 이후 남접·북접 연합의 농민군 지도자로서 활약하였다.

지금 대체로 황하일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체포되어 재판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송림면 구강교라는 등 이를 보완해서 일부를 더 확인할 수 있다.⁵⁴⁾

53) 『개벽』 제68호, 1926년 4월. 「甲午東學亂의 自初至終」

54) 『東學關聯判決宣告書』乙未(1895년)

黃河一(報恩) 第玖號

判決宣告書原本

忠清道報恩松林面九江橋居農民被告黃河一

年五十

右記者는 被告에 黃河一이 東學黨의 投入을 하야 地方安寧을 害한다 하기로
本裁判所에 拿交하야 審問을 另行하야 則起包囑聚하야 肆行凶暴하야 證憑이 的確이 아니
하야 學習妖書하야 證據는 分明하야 大 大明律에 妖書妖言條에 私有妖書隱藏不送官이
라는 明文을 照하야 處罪하야 거시니라

右에 理由로 以 被告에 黃河一을 笞一百徒三年의 處하야 노라

開國五百四年閏五月二十四日 法部裁判所

회인의 姜永奭과 朴聖模는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선무사 鄭敬源은 충청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동학의 두령들을 각 군현의 執綱으로 조사한 바 있는데⁵⁵⁾ 이 명단은 일본군에게 넘어갔다. 여기에서는 회인과 보은의 동학 두령으로 姜永奭과 朴聖煥 그리고 黃河一 任局鎬로 나오고 있다. 이를 보면 朴聖模는 朴聖煥의 오기로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대접주로서 苞를 이끌고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 이후 무장봉기한 지도자들이었다. 최시형이 1894년에 활동한 중심지였던 장내리와 옥천의 문암리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고 교단의 지침에 따라 활동하였다. 이들에 관한 연구는 보은의 동학에 관해 연구하는 주요 주제가 된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없어서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고승리의 김개조(金介劔)⁵⁶⁾에 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 기록은 전에 1894년 6월 21

5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61-64.

56) 『금번집략』의 7월 7일자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나오는 사례이다. “보은군수 정인량(鄭寅亮)의 보고 내용에, ‘본군의 경계 내에 있는 동학의 무리는 이번 봄에 동학의 도를 배반한 후에도 오히려 다시 복귀하여, 자주 상종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7월 2일 수백여 명이 사각면(思角面) 고승리(高升里) 천변에 모였다고 들었는데, 들어온 첩보가 사실이어서 군수가 효유하기 위하여 직접 갔는데, 과연 들은 바와 같이 이미 모여 있었으며, 술과 국수를 많이 준비하여 왔기에, 그 까닭을 물어보니 ‘고승리의 소민(小民) 김개조(金介劔)는 노병지류(老病之類)인데, 그의 생일이 임박하여 스스로 이렇게 시끄러운 때를 당하여 사는 날이 멀지 않다고 여기고, 그의 아들에게 사방으로 손님들을 청하게 하여 갑갑한 마음이나 풀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개조는 일찍이 동학에 가담한 자로서 부른 자들이 모두 동학의 무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속을 알 수 없고 꺾은 수상하여, 마치 잘못하여 소란을 일으킬 것 같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개조의 아들을 불러 장차 효유하여 금지하려고 할 때에, 그들 중 두령(頭領)인 자가 ‘우리들이 하는 일에 관이 어찌 상관하려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팔을 걷어 부치고 말로 핏박하였으며, 남은 무리들은 둘러싸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심지어 관속들을 쫓아내려하다가 끝내 말하기를, ‘수령[官家]의 이와 같은 행차는 이방(吏房)이 아뢰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방을 잡아갔습니다. 함부로 날뛰는 것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으나, 만일 하나라도 묻지 못하고 그만두면 장차 백성들에게 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그들이 가는 곳을 따라 갔는데, 5리 정도 떨어진 산골짜기 사이 숲이 있는 가운데에 멈추어 열을 지어 앉았으며, 군수를 영접하여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흥을 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모인 것은 단지 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개 마음에 품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소요하는 때를 당하였으니 마땅히 창의(倡義)해야 하는데, 수령께서 이미 행차하셨으니 우리들의 창의두령(倡義頭領)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수가 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경사(京司)가 위급한 날에 창의하겠다는 이야기는 괴이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서울의 소식이 어떠한지 모르는데 망녕된 생각을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동학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수령된 자가 동학배의 두령이 될 수 있겠는가? 의리상 할 수 없다’라고 하였더니, 저들이 말하기를, ‘이른바 동학 두 글자는 지금 이미 그 학(學)을 저버렸으니[背學] 동학으로 말하지 말고, 모름지기 선비[士儒]가 창의한다고 이름을 불일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말하기를, ‘비록 그렇

일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 후 보은에서 7월 2일에 의병봉기를 시도한 동학도들의 사례로서 소개한 자료이다. 지금 고승리에서는 김개조에 관해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없으나 그 후손을 찾을 수 있으면 일본군이 국왕을 인질로 만든 사태가 일어난 후 처음으로 보은에서 의병봉기를 시도하며 이방과 군수를 참여시키려고 했던 일에 관해 전해지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문헌 자료가 없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후손이나 방손을 찾아 조사하는 것이다. 보은에서 이런 조사가 시도하였지만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일정한 역량이 있었을 동학지도자에 관한 전문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후손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지조사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된다.

3. 보은에서 활동한 동학도 관련 자료

보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에 관한 자료는 사례연구를 할 정도로 발굴되지 않았다. 보은 유생들이 남긴 기록이 확인이 되면 경내에서 전개된 사건들을 이 지역의 인사들이 평가한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대할 수가 없다.

관찬 자료에서는 1894년 봄 1차봉기 때부터 보은 일대에서 수많은 동학도들이 집결해서 활동한 사실을 전해준다.

[東學黨에 관한 續報] 89號

다음은 仁川의 領事 앞으로 보낸 電文

1) 음력 4월 13일 卯時 (양력 5월 17일) 에 받은 全羅道監司의 전보

東學徒 몇천 명이 羅州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 牧使와 인근에 있는 읍으로 공문을 보내어 더욱 굳게 지키도록 하였으나, 수령이 없는 곳이 많으니 걱정스럽습니다.

2) 같은 날 午時에 받은 忠淸監司의 전보

동학도 3,000명 혹은 그 이상이 沃川·懷德·鎭岑·文義·靑山·報恩·木川邑 등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다만 官廳만 지키고 있으나, 정탐한 營校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피수를 기다려서 軍陣이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은 관련 자료는 1차봉기보다 재기포 이후 진압 당시 기록한 자료들이 대부분인데, 다음과 같은 것이다.⁵⁷⁾

게 하더라도 만일 창의를 하게 되면 마땅히 순영과 병영 양쪽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하였더니, 저들이 말하기를, '영문에 보고하는 것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만일 위급한 때를 당하였다면, 어느 겨를에 영문의 회답[回題]을 기다리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녹명기(錄名記)를 지어 바치고 머리제목을 '사유창의(士儒倡義)'라 쓰고, 도약장(都約長)을 '군수(郡守)'라 쓰고, 부약장은 그 두령들을 차례로 썼으며, 이방의 이름도 써넣었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자 이 무리들이 나라를 위해 창의했다고 말하는 것을 위력으로 막을 수 없으므로, 여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말은 바를 해야 한다고 하고, 이어서 '너희들이 이른바 요구하는 것이 만일 오직 나라를 위해 충의를 행하는 것이라면, 후일을 기다려서 순영과 병영에 보고하고, 서울의 기별을 탐지한 후에 창의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망령되게 민심을 어지럽힌다면 함께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엄하게 타일러 발송하였으며, 그 녹명기를 직접 베껴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름을 적은 기록 내에, "사유창의하는 자는 도약장 정인량, 약장 임규호(任圭鎬)·황하일(黃河一)·이관영(李觀榮)·김재현(金在顯), 이방 이상준(李尙準)"이라고 하였습니다."

57)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11월 4일, 『고종실록』 고종 31년 11월 4일, 『官報』 개국 503년 11월 4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兩湖都巡撫營 敎導所領官 李軫鎬가 지난 10月 26日 日本軍大隊와 鎭南營兵丁이 合同出戰하여 懷德에 到着한 후 數千名の 東學軍과 交戰에서 數十名을 殺害하고 朴聖燁등 7名을 生捕하여 銃丸·旗鼓·牛馬30匹을 獲得하였으며 隊官 李敏宏은 一隊를 거느리고 報恩·淸安等地를 偵察하여 東學接司 安武玄等 4名을 砲殺했음을 啓하다.

안무현 등 4명을 보은과 청안 등지에서 포살했다는 기록인데 이에 관해서는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찾아볼 수 있는 보은 관련 기록은 장위영 병대를 이끌고 장내리를 기습해서 마을 전체와 초막을 불태워버린 이두황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다.⁵⁸⁾ 이두황이 남긴 몇 가지 기사를 인용한다.

당일 저녁 사평(沙坪)에서 탐색하여 알아보니, 동도가 그 근처에 많이 있었다. 또 길을 떠나 10리를 가서 보은 땅 길곡(吉谷)과 중치(中峙)에 이르러, 두 마을을 포위하였다. 동도 김해경(金海京) · 김기환(金基煥) · 문중화(文鍾華) · 문희영(文喜榮) · 남판용(南辦用) · 전만철(田萬哲) · 문중흥(文鍾興) · 이태우(李泰友) · 정종길(鄭宗吉) · 문학만(文學萬) · 김윤영(金允榮) · 박만업(朴萬業) · 송민용(宋敏用) · 최일봉(崔一奉) · 이기원(李基元) · 김두봉(金斗奉) · 송계인(宋啓仁) · 조인이(趙仁伊) · 이한인(李漢仁) · 조한길(趙漢吉) · 원석만(元石萬) · 송헌세(宋憲世) · 신석용(申石用) · 김석재(金石才) · 김기동(金基東) · 조석봉(趙石奉) · 김석희(金石喜) · 조한석(趙汗石) · 서수영(徐壽榮) · 이원중(李元中) · 정동길(鄭東吉) · 신두적(申斗赤) · 이학이(李學伊) · 이성관(李聖寬) · 송봉래(宋奉來) 등 35명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말미나 휴가를 청한 등짐장수[負商]와 행군 대열을 따라온 포교들이 체포하였다. 길곡점(吉谷店)에 당도하니 밤은 이미 깊어져 추운 기운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잠잘 곳을 정하여 숙박하는데 여관[店]이 비좁아서 일행이 모두 방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장리(將吏)와 군졸들은 모두 서리를 맞으며 한데서 주둔했다. 보기가 몹시 안쓰러워 불을 밝히고 밤을 지새웠다.

길곡과 중치에서만 사로잡힌 사람들만 무려 35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것 때문에 잡힌 사람도 있었고, 접주 등 동학의 지도부에 속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입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두황은 문초를 통해 이들을 분류하고 오래된 동학도와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사실이 명백한 12명을 총살하였다.

10월 14일 맑음 [十四日晴]. 길곡에서부터 거북고개[龜峴]를 넘어 구기점(龜基店)의 5리쯤에 이르러 동도 35놈을 일일이 취조해 보니, 그 중에 김해경(金海京)은 그 무리 중에 맡은 임무는 없었지만 따라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김기환은 성찰(省察)을 맡아 백성들을 속여 미혹한 행동을 멋대로 했으며, 이태우는 접주를 맡아 무리 100여 명을 거느렸다. 문학만 · 이원중 · 최일봉은 봉도(奉道)로써 정신이 팔려 뺏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리고 서수영 · 조인이 · 원석만 · 김석재 등 4놈은 이천(利川)에 함께 거주하면서 미혹한 행동으로 왕래하며 취회하였다. 조한길은 집강을 맡아 도리에 어그러진 일을 멋대로 하였으며, 조한석은 본읍의 관포수(官砲手)로서 기꺼이 동학에 들어가 두려워하는 바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앞의 12놈은 그 여관 큰길 왼편에서 총포로 쏘아 죽여 민중들을 경계시켰다. 나머지 23놈은 모두 위압을 당해 들어갔으며 활동한 기간이 오래지 않아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아울러 비류를 배반하여 선행을 따르고 생업으

58) 『양호우선봉일기』

로 돌아가 삶을 즐기라는 뜻으로 깨우쳐주며 놓아 보냈다.

보은에서 잡혔다고 해서 보은에서 살던 주민이 아니었던 것을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서수영·조인이·원석만·김석재 등 4사람은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같은 포에 속했거나 보은의 동학 조직과 일정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같이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태우·김기환·김해경·문학만·이원중·최일봉·조한길·조한석은 보은사람들로서 길곡과 증치에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 또 조한길·조한석은 형제일 가능성이 있다. 족보를 찾아보면 찾기가 쉬울 것이다.

조한석은 보은의 관포수였다고 한다. 보은 관아의 지시를 받아서 관치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인물도 동학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다. 접주인 이태우는 100여명이나 동학에 입도시켜서 이끌던 길곡과 증치의 동학지도자였다. 혹 길곡과 증치에는 그를 아는 후손이나 아니면 방손이 살지 모른다. 그 집안 내력을 조사하면 보은 동학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기록도 주목이 된다.

또 행군하여 보은의 큰 고개에 이르러 붙잡아 온 동도 강동회(姜同會)와 이희영(李喜永)은 함께 집강을 맡아 자기 멋대로 행패부린 자들이었다. 장물(贓物)로 금고(金鼓)를 각각 1좌(坐)씩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관 앞에서 총포로 쏘아 죽였다.

강동회와 이희영은 보은에서 집강을 맡아서 활동한 인물이다. 전라도 각 군현에 집강소가 설치되어 민정기관이 향촌사회의 폐정을 개혁하고 있을 때 충청도에서도 집강소가 운영되는 모습을 영동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충청감사가 영동의 집강을 통해 동학도들의 무단 행위를 제어하려고 했던 일이 그것이다.⁵⁹⁾ 강동회와 이희영이 군현 단위의 민정기관을 통괄했던 인물인지, 동학의 육입의 하나를 맡아서 활동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두황에게 포교 등이 잡아온 동학도에는 보은 사람으로 밝혀진 인물들이 있다.

포교 등이 잡아 바친 동도는 보은의 신촌(新村)에 사는 방갑준(方甲俊), 대암(大巖)에 사는 권망아지(權亡兒之), 이천의 근곡(芹谷)에 사는 홍복용(洪卜用), 보은의 안양(安良)에 사는 이광직(李光直), 안성의 기좌촌(其佐村)에 사는 신덕보(申德甫), 충주의 모두원(毛豆院)에 사는 안재용(安在用), 용인의 천곡(泉谷)에 사는 이청학(李靑學) 등 7놈이다. 그러므로 자세히 심문하여 사실을 밝히니, 7놈이 함께 청산의 비도가 도회(都會)한 곳으로부터 돌아온 자들이었다. 때문에 방갑준·권망아지·홍복용·이광직·신덕보·안재용 등 6놈은 모두 보은 앞에 있는 큰길가에서 총포로 쏘아 죽여 민중을 경계시켰다. 이청학은 공초(供招)에서 말하길, “만약 내가 청산에 가면 마땅히 비적의 괴수를 지목하여 그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우선 포교와 포졸로 하여금 그를 압송케 하여 회인에 이르렀다.

신촌의 방갑준과 대암의 권망아지(權亡兒之), 그리고 안양의 이광직이다. 청산의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면 봉기에 적극 참여한 인물들이었다. 신촌과 안양에서 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인물들을 밝히는 단서를 보여준다. 그것은 살던 마

59) 『錦藩集略』

을과 이름뿐이다. 이 단서로 후손을 찾고, 족보에서 확인하며, 집안에서 전해지는 일화들을 채록할 수 있으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참여자의 집안 배경이 조사되면 양반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선대에서 물려 받은 재산 정도로 추정해서 부농과 빈농 여부도 알 수 있다. 동학에 들어가서 활동한 사실도 단편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재구성하면 1894년의 보은 사정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1894년 이후에도 보은에는 동학도들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다.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동학 계통 다양한 신흥종교에 속해서 활동한 경우도 있고, 활빈당 등으로 저항운동을 펼쳤던 사람들도 있다. 그 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⁶⁰⁾

속리산 東學黨의 祭龍王文

前監察 崔載浩는 관군을 인솔하고 속리산을 수색하여 동학도 40명을 체포하고 그들의 문서를 빼앗아 보고하였는데, 그중 祭龍王文은 다음과 같다.

“경자년(1900) 3월 15일 子時 오후 11시부터 익일 1시 에 先鋒大元帥, 中鋒三皇, 後鋒五帝는 행차하여 장차 한강을 건너 경성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北海 龍國에 제물을 바치오니 주인이 제향한 후 용왕은 선봉, 黑帝將軍은 후봉이 되어 水軍兵馬 3천명을 거느리고 3월 15일 寅時 오전 3시부터 5시 에 漢陽을 도착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 습을 어기면 별도로 答刑 300대를 가하여 어별(魚鱉, 물고기와 자라)의 불순한 죄를 적용하여 북방의 불모지로 유배하고, 黑龍國을 모두 革罷할 것입니다.”

그리고 깃발에는 「南朝鮮山如谷四明後鋒」이란 11자를 큰 글씨로 써 놓았다. 그들은 비루하고 망령스럽기가 이러하였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들을 信從하여 끝까지 단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報恩郡의 郡吏 李漢鎬는 淸州隊와 합류하여 活貧黨 30여 명을 쫓아내고 靑山郡에서는 동비 3명을 체포하였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 수천 명은 寒食日 천왕봉에 모여 崔濟愚의 제사를 지내고 경성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제각기 孝服 한 벌씩을 가지고 다녔는데 제사 때 입는다고 하였다.

보은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유족으로 신청한 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적어도 ‘수천명’이 1894년에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지만 이들 거의 모두 한 세기 이상 탄압의 결과 그 사실조차 전해지지 않고 있다. 후손들은 심지어 스스로 동학과 관련한 증거들을 인멸시키고, 탄압의 원인이 되었던 선대의 동학 참여 사실을 잊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보은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일부 남은 기록을 근거로 현지조사를 통해 증언 등 새로운 내용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4. 보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연구 전망

1893년에 보은은 동학의 중심지로 전국에 알려졌다. 동학 교주 최시형이 머물던 장내리에 대도소가 설치된 이후 사방에서 동학도들이 보은에 왕래하며 활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정에서도 보은에 모인 동학도들의 활동을 한 동안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다루고 있었다. 보은을 주목하였다.

60) 『梅泉野錄』 제3권, 光武 4년 庚子(1900년) 기사.

1894년 봄 전라도에서 시작한 동학농민군의 1차봉기 시기에도 보은 일대의 동향은 심상치 않았다. 전라도 지역의 봉기에 따른 호응 및 교단의 보위를 위해 수많은 동학도들이 집결해 있었다. 청주병영과 관아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하였지만 교주인 최시형과 대도소가 위치한 보은에 병대를 파견하거나 탄압할 시도를 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

이해 가을 최시형이 동학 조직에 내린 기포령은 전국에서 무장봉기한 동학도들을 보은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이었다.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이 보은으로 속속 집결해서 대군을 이루었다. 이 대군은 영동과 황간에 나누어 주둔했다가 통령 손병희의 지휘 아래 보은 우금치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학에 입도해서 활약한 보은 사람들도 많았고, 또 동학농민군으로 공주 우금치까지 가서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11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러한 사실은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연구하는 문제는 여러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첫째, 문헌 자료의 발굴이 더 진행되어야 한다. 문헌 자료 중 보은 인근 군현의 유생들이 보은의 사정을 기록한 내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충주의 유생이 쓴 『율산일기』에 보은집회의 사정을 전해주는 기록을 찾아낸 것은 좋은 사례가 된다. 물론 보은의 유생들이 쓴 기록을 찾으면 더 구체적인 지역사실을 전해주는 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인이 남긴 자료는 새로운 사실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찾아보아야 한다. 최시형을 방문하려고 시도한 일본인이 보은에서 황하일로 보이는 인물을 만난 기록이 있다. 일본군 관련 기록은 일본방위성에 보관된 청일전쟁 및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진압 관련 전투보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은에 관한 일정한 기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은에서 동학마을로 알려졌거나 동학농민군이 체포된 마을을 현지조사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진압기록에서 찾아낸 이름을 근거로 후손을 탐문하면 직계 후손이나 방손을 만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증언은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보은 뿐 아니라 인근 옥천과 영동 그리고 경상도 상주의 문헌 자료에서 보은 관련 기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일부 기록만이라도 확인되면 보은의 사례연구에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은 사람들과 동성동본이나 인척으로 연결된 인근 지역 마을을 답사할 필요가 있다.

보은을 주대상으로 한 동학 관련 연구는 필요하다. 그리고 1900년대와 1910년대까지 바로 연결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즉 보은에 동학이 들어온 이후 갑오년의 격랑을 거치고 활빈당이 활동하던 상황을 검토하는 일관된 사례연구는 보은 근현대사의 주요 흐름을 드러내줄 것이다. 또한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시 1919년에 천도교 조직과 연관해서 3.1운동에 나서게 되는 사실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4. 맺는 말

보은의 동학마을과 보은에서 활약한 동학지도자 및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은 경내에서 벌어진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밝혀주는 사례연구조차 발표된 것이 없다. 보은의 동학 및 동학농민군 활동에 관한 연구는 먼저 19세기

후반 보은의 사회경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동학 조직이 들어와 확산하는 과정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대도소 설치 이후 보은은 전국에 동학 중심지로 알려지게 되는 데 거기에서 보은의 동학은 주목되지 않았다. 1893년 당시 조정에서도 보은의 동학이 아니라 보은에 모였던 동학도들의 '수괴와 그 무리들'을 주목하였다. 이제 외지에서 보은에 모인 동학도뿐 아니라 보은의 동학도들과 그들이 살던 보은의 사회경제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보은에서 활약한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를 찾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당시 정부 관리들과 일본군은 각지의 동학 지도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정보 자료에서 보은의 동학 지도자를 교단의 지도부와 별도로 파악하고 있었다. 보은에서 동학조직을 확대하고 동학농민군의 결성과 지휘에 두각을 드러낸 인물은 주요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관찬자료와 동학교단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연구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진압군이 보은 일대를 순회하면서 동학도를 탄압한 내용도 밝혀야 한다. 관군과 민보군 그리고 일본군이 여러 차례 순회해서 동학의 거점마을을 초토화시켰는데, 장내리는 마을 전체가 불에 타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었다. 진압군이 행군하던 길에 보은의 동학도들을 체포해서 처형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실상은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에 보은의 동학농민군에 관한 단서가 나온다.

보은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잘 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보다 자료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1894년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호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동학 조직에서 활동했거나 갑오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다. 진압에 참여한 양반유생들의 기록도 확인된 것이 거의 없다. 보은 현감이 보고한 일부 사실과 편지글만 있지만 아직 이 자료도 연구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면 보은의 동학농민군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치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 문헌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활동했던 참여자의 후손을 찾아서 증언을 들으면 자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